

물해설사에게 듣는 용천수 이야기 제주개발공사 물 스토리북-동부편 발간

제주물 해설사들이 도내 곳곳의 용천수 현장을 기록한 책자가 발간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용천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제주물 스토리북-제주도 동부지역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점차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주물 스토리북' 발간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공사 지역거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제주물 해설사'가 용천수 현장을 찾아 스토리를 발굴·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물 해설사 6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천읍(90개소)과 구좌읍(41개소), 성산읍(52개소), 표선면



(25개소), 남원읍(44개소) 지역의 용천수 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마을을 찾아 과거에 용천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마을의 용천수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깃들여 있는지를 직접 듣고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특히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위치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천수를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공사는 앞으로 제주도 서부 읍면지역을 비롯한 제주도 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해 제주도 전체의 '제주물 스토리북'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인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제주권 거점 센터로 지정돼 '제주지역 선진형 물관리 체계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 앞서 2018년 제주의 물 자원 연구를 집대성한 '화산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를 발간한 바 있다.

제주시장 주거취약지구 방문 위로

고희범 제주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3일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29가구를 방문해 여름이불 세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가정의 달 행사가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주거취약가구를 위해 마련했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주거취약가구는 컨테이너 등에서 홀로 거주하는 장애, 노령 가구다. 시는 화재·재난 등 위



현으로부터 사전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건입동 김추자씨 김만덕 사랑의 쌀 기부

제주시 건입동에 사는 김추자씨가 작년에 이어 사랑의 쌀 기부금 200만원을 지난 12일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에 기탁했다. 김추자씨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2019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시상식' (주최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KBS사장상을 수상한 인물로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만덕 사랑의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교총 스승의 날 '사랑의 떡' 나눔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랑의 떡을 도내 모든 초·중·고·대학교에 전달하는 행사다.

김진선 회장은 "사랑의 떡 배송과 응원의 메시지로 교원들이 새로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농민회 마늘수확 농촌 일손돕기



(사)한국새농민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송용진)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새농민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수확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송용진 회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나 타 지역 노동 인력 유입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영농철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태윤씨 '문학세계' 시 부문 신인상



제주 출신 양태윤(사진)씨가 월간 종합문예지 '문학세계' 5월호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당선작은 '목욕탕에 가면', '봄', '생명' 등 3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시의 맛과 멋을 잘 살려낸 작품들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행을 거듭하면서 스케치하고 수채화 물감을 입히듯 독자들을 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양태윤 시인은 당선 소감에서 "여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서정적인 모습으로 향기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며 "이제는 시 쓰는 글쟁이로 자연과 의식과 영혼을 교감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회를 맞은 양 시인은 해병대에서 23년간 복무했고 국방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소설집 '어느 보통 사람의 특별한 인생'을 냈다.

제주대·기상청 기상 전문인재 육성 협약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와 기상청(청장 김중석)은 13일 제주대에서 기상기후분야 연구개발과 지역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대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과정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석·박사 과정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현장실습 연구 과정을 맡고 제주대는 이론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첨단 관측기술, 기후변화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

제주대는 "이번 협약이 실무연구 중심의 기상·기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생명나눔 헌혈운동'



서귀포경찰서(서장 유동배 총경)는 13일 서귀포경찰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마련한 행사다.

유동배 서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정

저소득 장애인가구 밀반찬 배달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15일 제주시 삼도1동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밀반찬 배달에 참여할 예정.

재난지원금TF팀과 간담회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지난 12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업무를 맡고 있는 재난지원금TF팀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난지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 당부



◇김재식 도두동장 13일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 착한 가격업소 이용과 전통시장에서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을 당부.

한림읍 아나바다 작은 책방 운영



한림읍(읍장 홍경찬)은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간 소통을 위해 이달부터 한림2리 재활용도움센터에 버려지는 책과 책장을 활용한 '아나바다 작은 책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림읍은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재활용도움센터에도 '작은 책방'을 조성해 분리 배출 문화를 유도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주도축구협회 코로나19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김정오)는 지난 1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코로나19 극복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정오 회장은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위기가정의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孝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빽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공항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p>BD-AFE50N</p> <p>생활방수 3년무상A/S</p> <p>₩299,000 ₩229,000</p>	<p>BD-N443(리모컨)</p> <p>방수비데</p> <p>₩299,000 ₩259,000</p>
<p>BD-AE91</p> <p>방수비데 (3way 노즐)</p> <p>₩269,000 ₩229,000</p>	<p>BD-CD51N</p> <p>방수비데 (원적외선 건조) 보상판매</p> <p>₩299,000 ₩229,000</p>